

# 보양식도 가지각색...“초복 특수 잡아라”

### 광주신세계·롯데마트, 삼계탕·전복·장어 등 최대 20% 할인 1인가구·혼밥족 늘면서 갈비탕·설렁탕 가정간편식도 잘나가

초복(12일)을 앞두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려는 소비자들이 보양식을 찾고 있다.

복날 대표 음식인 삼계탕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복·민어·장어 등 해산물도 여름철 입맛을 되찾아주는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1인 가구와 ‘혼밥족’이 늘면서 가정간편식이 보양식 판매 경쟁에 뛰어들었고 동물복지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착한 먹을거리’도 인기를 얻고 있다.

9일 광주축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지역에서 유통되는 닭고기(육계) 1kg 평균 소비자가격은 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00원) 보다 12.3% (1100원) 올랐다. 한우등심(1등급·kg) 가격은 8만7000원으로 2017년 8만2900원→2018년 8만4760원 보다 소폭 올랐다. 수급 물량도 같은 기간 1만2457마리(2017년)→1만2462마리(2018년)→1만3113마리(2019년)로 늘었다.

돼지고기는 성수기를 맞았어도 소비 부진으로 인해 kg당 가격이 2만1940원(2017년)→2만1000원(2018년)→1만9500원으로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지역 유통가는 ‘초복 특수’를 잡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지역 롯데마트 4곳은 11~17일 ‘국산 보양식 기획전’을 진행한다. 고급 보양식 완도 전복은 20만 마리(15t) 물량이 확보돼 전국 점포에서 20% 가량 저렴하게 선보여진다. 스마트 계류장에서 산소량·온도가 자동 조절된 전복 10마리(중)를 1만9800원에 만날 수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길러진 ‘동물복지’ 백숙용 닭(1.1kg)은 6900원에 판매된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을 받은 씨적은 수박(6~10kg)은 결제 카드에 따라 10~20% 저렴한 9900~1만3900원에 살 수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 매출도 날로 늘고 있다.

SSG닷컴이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삼계탕과 갈비탕, 장어 요리, 전복죽 등 보양식 가정간편식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이상 증가했다. 삼계탕 매출액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설렁탕(50%)과 곰탕(30%), 갈비탕(26%)도 매출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생닭과 사골, 전복 등 원물 식재료 매출 증가는 20%대에 머물렀다.

롯데마트는 가정간편식 인기에 발맞춰 ‘하림 신선 삼계탕’ (800g) 등 10종을 2개 구매하면 10%, 3개 이상 구매 땀 20% 할인해 판매한다.

㈜광주신세계는 모바일 앱을 내세워 보양식 마니아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각종 보양식을 할인하는 ‘초복 특집전’을 진행한다. 신선계백화점 앱 쿠폰을 제시하면 전복(중·5마리·1만3500원), 민물장어(2마리·3만2800원), ‘울반 흑마늘 삼계탕’ (900g·7800원), 수박(7kg·2만5800원), ‘강개산인 홍삼정 투플러스’ (240g·9만9000원) 등을 할인 가격에 살 수 있다.



광주지역 롯데마트 4곳은 11~17일 완도 전복과 동물복지 백숙용 닭 등 대표적 보양식 품을 할인 판매하는 ‘국산 보양식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쇼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2.03 (-12.14)	금리(국고채 3년) 1.42 (0.00)
↓ 코스닥 657.80 (-10.92)	↓ 환율(USD) 1180.50 (-1.50)



송중옥 광주은행장(왼쪽부터 세번째)이 임택 동구청장(왼쪽 두번째), 광주은행 직원들과 함께 쿨박스를 포장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여름나기 쿨박스’ 동구청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옥)은 지난 8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 3층에서 송중옥 광주은행장과 임택 동구청장 동구청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백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쿨박스’ 10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름나기 쿨박스’는 여름이불, 양말, 모기 퇴치약, 부채, 라면, 치약, 비누 등 여름을 나기 위한 11가지 종류의 생필품을 송중옥 광주은행장과 임택 동구청장 시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임직원, 지역사랑방사단 직원이 직접 포장한 박

스로 광주 동구 지역 내 폭염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다가을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쿨박스가 시원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광주은행은 오는 9월 20일까지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객님과 지역민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 광주상의, 12일 ‘미래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10시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초·중학교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 교육 공감 토크 콘서트’를 연다.

전문교육기관인 ㈜양트랩, ㈜키움인교육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맞춰 학부모가 무엇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지를 전문가와 토론하며 경험을 나누는 행사다. 강사는 박상인 박사(서울

대 연구원)로, ▲내 아이 컴퓨터 사고역량 강화방법 ▲컴퓨터 사고능력이 왜 필요한가 ▲내 아이가 만날 미래사회의 일자리 역량 변화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광주상의는 게임·동영상을 자유자재로 만들고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력을 테스트하는 상공회의소 컴퓨팅사고능력 자격시험을 소개한다. 문의, 광주상의 검정사업부 062-350-5850, 키움인교육 062-381-0500. /박정욱 기자 jwpark@

## 한전, 개폐기·변압기 ‘SF6가스 정제장치’ 개발

온실가스 감축 효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폐기된 개폐기·변압기에서 나오는 SF6가스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SF6가스 정제장치’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개폐기, 변압기의 절연(絶緣)용으로 활용되는 SF6가스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2만3900배나 되는 온실가스로서, 전력설비를 폐기할 때 SF6가스가 대기에 누출될 경우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한전 전력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SF6가스 감축기술 개발에 착수해 SF6 분

석·정제·분해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으며, SF6 정제장치는 지난 6월에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SF6가스 정제장치’는 영하 100도씨에서 SF6가스는 고체로, 기타 가스는 기체로 존재하는 특성을 이용해 기체를 배출시킴으로써 고순도의 SF6가스를 회수해 이를 전력설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간 10t 분량으로 폐기되는 전력설비에서 SF6가스를 회수해 정제하고 재사용하면 SF6가스 구입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 직장인 4명 중 1명 여름휴가비 받는다

평균 4일, 휴가비 39만6000원

인크루트 660명 설문 조사

직장인 4명 중 1명꼴로만 여름 휴가비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정보사이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6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름 휴가비를 받는다는 응답은 25.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6.2%)보다 0.8%포인트 줄어든 비율이다.

직장에서 기본 연차 외 여름 휴가를 따로 준다는 응답은 전체의 46.4%로, 지난해 56.4%보다 무려 10%포인트 줄어 들었다.

기업의 규모별로 휴가 지급 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60%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52.8% ▲중소기업 45.5% ▲벤처스타트업 34.8% ▲공공기관 26.7%가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의 여름 휴가는 평균 4일 정도 이었고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휴가비는 39만6000원인 것으로 나왔다. 지난해 평균 휴가비는 49만5000원에서 20% (9만9000원) 정도 떨어졌다.

올 여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하계 휴가를 계획 중인 가운데, ‘7월말 8월초’에 가겠다는 비율은 높고 ‘9월 이후’ 가을 휴가를 선호하는 비율은 늘었다.

## 치킨 시키면 생맥주도 배달 가능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동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세법에 따라 음식점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음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광주역  
연세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유기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